

들어가면서

- 흔히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출발을 출애굽에서 찾는다.
- 출애굽기는 모세의 출생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,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으로 시작한다. 곧 모세이야기는 출애굽기 주제의 일부라는 말. 전체 줄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야기로 요셉이야기와 더불어 문학적으로 (그리고 그 안의 역사적 맥락에서) 창세기에 연결된다.
- 다윗/아브라함 궁중신학에 반(反)하는 대안신학으로 읽기
  - ⇒ 출애굽기는 내용이나 형식상 창세기를 전제하고 있다. 곧 궁중신학/지배이데올로기를 전제.
  - ⇒ “The task of prophetic ministry is to nurture, nourish, and evoke a consciousness and perception alternative to the consciousness and perception of the dominant culture around us.” (Walter Brueggemann, *The Prophetic Imagination*, [2d edition; Philadelphia: Fortress, 2001], 3).
- 출애굽 당시 60 만 장정 (출 12:37)—그 숫자의 의미는?
  - ⇒ 성서를 떠나서는, 이집트 문헌을 포함 어디에도 출애굽에 대한 기록이 없다. (인구통계 변화)
  - ⇒ 학자들은 이 숫자가 과장되었다고 믿는다. 그래서 줄인다. 그러면, 해결되나? 그 신학적 의미는?
  - ⇒ 엘레프(𐤀𐤋𐤏) 다시 이해하기 (Nahum M. Sarna, *Exodus; The JPS Torah Commentary*; Philadelphia: Jewish Publication Society, 1991), 62, 245.
    - 1) 엘레프=> 족속, 지파, family—삿 6:15; 삼상 10:19; 미 5:2
    - 2) 600 이라는 숫자는 자주 등장하는 군사단위—삿 3:31; 18:11, 16, 17; 20:47; 삼상 13:15; 14:2; 23:13; 27:2; 30:9; 삼하 15:18; cf. 출 14:7
    - 3) 다윗/솔로몬 당시 인구(cf. 왕상 5:13-18; 삼하 24:9)

**Identity Formation II: Moses and Doing Theology Anew**

⇒ 출 2:23-25; 3:7-10 과 왕상 11:40 연결해 읽기

-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.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,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(출 2:23-25)
- 이렇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(왕상 11:40) => 모세의 소명(출 3:7-10)

| Exodus 1:14   | 1 Kings 12:4   |
|---|--|
| 고역(hard service)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이라.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. |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,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(hard service)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.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. |

**hard service** (Ex 1:14; 1 Kings 12:4/1 Chr 10:4; cf. Ex 2:11, 23; 5:9; 6:6; Isa 14:3)

|            | 아브라함 언약>>시온신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모세 전승>>신명기신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|--|
| 정체성/자의식    | 나는 예외적 인물: 선택과 축복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는 보다 낮은 미래를 꿈꾼다: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동기, 축복의 내용 | 땅(재물), 자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통으로부터 해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언약         | 영원한 언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건부 언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도자        | 하느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람; 특히 5 여인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약속의 범위     | 다윗과 특권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(Ex 12:37—600,000 men on foot) |
| 종교적 성격     | 안정과 번영, 제의 중심, 보수적 성격 ☞ 비극/고통에 무디어 짐 (아편) | 자유에 입각한 진보주의적 성격 ☞ 아픔과 분노 속에 새로운 희망을 줌       |
| 정치의식       | 압제와 착취=>제국주의(imperialism)                 | 정의와 평등=>민주주의(democratism)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|--|--|
| 신의 모습            | 질서유지의 하느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방의 하느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추종자들             | Hav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Have-no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치/종교 성향         | 보수적—창조질서란 현상유지(status quo)                 | 진보(진짜 보수)적—창조질서란 "하느님형상"               |
| 기독교 모습           | 325 년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 Christendom (세상과 짝한 기독교) | 313 년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 이전 Kingdom of God |
| 신학의 성격           | 왕권/귀족 신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백성/서민 신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word play        | פָּנָה (laugh: 창 17-21 장)                  | פָּנָה (cry out-complain: 출 2:23)      |
| 성전               | centralized, immovable building            | movable tents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통점: 하느님의 시험의 성격 | 경외 (창 22:1, 1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외 (출 20:20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주제

- 억압/매임(Bondage). 바로의 이름을 밝히지 않음=> archetype, 억압적 지배체제 personified
- 체제와의 맞섬(Confrontation/Challenge)
  - ⇒ 하느님의 대변자, 모세(출 3-4 장)
  - ⇒ 바로와 면담(출 5-6 장) => 실제로는 바로(세상의 권세)와 하느님과의 대결
  - ⇒ 10 가지 재앙(출 7-11 장)
  - ⇒ 유월절(12-13 장)
- 해방(liberation): 출 14 장
- And the story continue=> 광야생활(wilderness)은 현실을 반영. (어떤 이들은 다시 억압적인 애굽생활로 돌아가자고 주장(16:3). 보다 체계적인 공동체형성의 필요성=> 언약관계. 다음 주 토펙)

결론

- 하느님의 구원의 행위는 창세기에서 나타난 창조질서에 기초한다. “생육하고 번성”(창 1:28=> 출 1:7). 족장들과의 언약을 기억(창 12:1-3=> 출 2:23-24; 3:6, 15-16; 6:2-3, 8). 바로는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해치는 무질서(chaos) 세력으로 그려짐(출 15장). 다른 말로 구원이란 재창조(re-creation) 행위.
- 모세와 신명기 신학은 당시 지배체제 이데올로기였던 아브라함/다윗 궁중신학에 대한 도전이다.
  - ⇒ 예수과 복음서는 1세기 초 유대 지배신학에 대한 도전이었다. (마 5:21, 27, 33, 38, 43).
  - ⇒ 우리들 신학/신앙 역시 박제화된 억압적인 도그마 위주의 지배신학으로부터 예수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재/창조적 신학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.

생각해 보기

1. 하느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(출 3:13-18; 6:2-3)은 그 이름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그리고 있지만, 다른 한 편 그 이름을 남용, 오용(abuse)의 위험을 동시에 앓고 있다=> 함부로 부르지 말라(출 20:1-3). 그래서 YHWH=> LORD 로 읽기. 문제는 “LORD”가 직책이지 사람/신(YHWH)의 이름이 아니라는 점. 마찬가지로 Jesus Christ 에서 “그리스도”는 이름의 일부가 아니라, 예수를 염두에 둔 약칭.
2. 십계명 4:6 인가 3:7 인가?
  - ⇒ 하느님에 대하여: 1-3--하느님을 맘대로 가지고 놀지 말라
  - ⇒ 인간에 대하여: 4-10--안식일의 의미(출 20:8-11; 출 23:12; 신 5:12-15 & 마 2:27-28)